

힙스터 개념으로 해석한 성수동 재생 경관의 미적 함의*

신명진* · 배정환**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전공 ·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I. 머리말

국내 도시재생은 여러 유형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구도심에서는 골목 상권을 중심으로 한 상업적 도시재생 사례가 성과를 거둬고 있다. 반면, 도시재생의 결과로 조성된 재생 경관에 대한 분석과 미적 맥락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많은 재생 경관이 브루클린, 포틀랜드, 리스본 등 국외 유명 도시의 '핫 플레이스'들을 벤치마킹해 유사한 미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 고유의 장소성과 경관의 경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도시의 재생경관을 해석하기 위한 미학적 관점과 논거로 힙(hip) 또는 해당 문화를 체화한 계급인 힙스터(hipster) 개념에 주목한다. 본래 '힙'이란 1940년대의 서브컬처를 의미하지만, 1990년대 이후 영미권의 선진 도시재생 트렌드와 맞물리며,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문화적 전유(appropriation)와 함께 사회·문화적 도시 공간을 둘러싼 쟁점으로 여러 담론에서 조명을 받고 있다. 그러나 힙스터 문화는 끊임없이 탈바꿈하고 있으므로 공간이나 경관을 비평하기 위한 힙스터 문화의 이론적 틀과 미학적 원리를 명확히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힙스터 개념과 미적 함의를 고찰하여 경관을 미학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후, 대표적 도시재생 사례인 성수동의 재생 경관을 힙스터 미학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II. 힙스터 문화의 개념과 미적 함의

1. 힙스터의 정의와 개념

최근 힙스터 문화를 정의하고 개념화하기 위한 여러 시도가 전개되고 있다. 웨스 힐(Wes Hill)은 힙스터를 신자유주의 시대 거대 시장의 힘과 다원주의에 기반한 탈비판적 위기라는 맥락에서 정체성을 고민하는 개인의 편린이라 보았다(Hill, 2017). 또한, 사회학자 마크 그리프(Mark Greif)에 따르면, 힙스터 문화는 본질적으로 타 개념을 언급하고 인용하며, 기호를 시공간적으

로 재구성하기에 그 구성 요소 역시 다원적이며 상대적으로 위치 매김되어 있다(n+1, 2011). 즉, 기존 서브컬처가 주류에 대한 특정 비주류 집단의 대응이라면, 힙스터 문화는 고정되지 않은 불특정 주류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힙스터 미학은 모방과 패러디, 아이러니로 구현되며, 여기서 아이러니 개념은 힙스터 미학 특유의 구조 중심적 미감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기존 체제의 구조적 전복을 통한 유희성이 힙스터 아이러니 개념의 중심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힙스터 문화는 이런 태도를 통해 계몽적이고 합리적인 진지한 문화(즉 사회적 주류)에 대항할 뿐 아니라, 내면의 불안정성을 합리화한다. 힙스터는 19세기 프랑스의 배회자(flaneur)와 유사한 방식으로 도시를 표류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Hill, 2016).

이에 더해 힙스터 문화에는 '진지함'이 결여되어 있어 미적 경험이 도덕적 고찰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Hernandez, 2014). 일상의 미적 경험을 통해 '미적-도덕적 판단'을 일으키고, 삶을 내면화하고, 세계와의 관계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진지함이 필요한(Saito, 2017) 반면, 진지함이 결여된 힙스터 문화는 현대 사회·문화의 구조적 틀을 모방하고 재생산하는 경관을 조성하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힙스터 문화의 미적 함의

오늘날 힙스터 문화와 그에 따른 미적 취향은 현대 도시 경관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n+1, 2010). 힙스터 미학이 우리 일상의 미적·감각적 부분을 파고들어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힙스터 미학의 성공의 이면에는 젠트리피케이션과 경관 관리의 난점이라는 문제가 수반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해서는 오늘날 사회가 지닌 미적 취향과 선택이 초래하는 결과, 즉 조성된 경관이 계획·설계·시공 이후 획득하는 미적 함의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Saito, 2017).

서브컬처로서 힙스터 문화는 주류와 대조되는 비주류적 취향에 기반한다. 따라서 브루클린의 노출 적벽돌과 창고의 형태가 국내에 착륙해 만들어내고 있는 서울의 여러 재생 경관은 도시

*: 이 논문은 2018~2019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고 있는 기초연구사업의 일부임(No. NRF-2016R1D1A1B03933802).

의 장소성이 아닌 범지구적 힙스터 취향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서울의 성수동이나 문래동과 같이 낙후된 공장 지역이 힙스터 문화의 개입으로 인해 상업화적으로 재생되는 과정은 힙스터의 '비주류적 미적 취향'이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국내의 장소를 발견하고 상품화하는 과정이라고 해석이 가능하다.

III. 성수동 재생 경관의 미적 해석

이 연구의 대상지는 성수동의 골목 상권 두 곳으로, 성수이로를 중심으로 한 성수역 카페거리와 서울숲에 맞닿은 서울숲길 카페골목 지역이다. 힙스터 문화의 범지구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성수동 등 국내 힙스터 경관의 재생과 재활용은 독일의 뒤스부르크-노르트(Duisburg-Nord) 공원이나 뉴욕의 하이라인(Highline)과는 다른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다. 이는 국내 재생 경관의 요소가 고유의 역사·문화적 맥락과 아이러니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상지에서 가지적으로 반복되는 재생 경관의 요소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1. 성수동 카페거리: 공장의 재활용

낙후된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서울시의 '강북 유턴 프로젝트'는 지난 2010년부터 서울숲을 포함한 성수동 일대의 상업적 도시재생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다. 2000년대 중반 성수동에 등장한 복합문화공간 대림창고를 시작으로 오래된 공장과 창고의 미감을 살린 디자인 카페들이 성수동 카페거리를 형성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재생 경관의 대표적인 요소는 공업지대였던 근대 역사를 표현하기 위한 벽과 건물의 거친 표면이다. 이에 더해 대림창고의 간판처럼 공간이 전용되기 이전의 용도를 드러내는 지표(index)는 장소기억을 시각화함으로써 장소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한다.

한편, 성수동 카페거리가 지난 낙후된 공업지역으로서의 가지적 요소를 '비주류적 취향'으로써 도출하고 모방하는 힙스터 미학 특유의 태도는 성수동의 고유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동한다. 예를 들어, 적벽돌과 노출 콘크리트를 하나의 설계적 언어로 설정하는 것은 낙후된 공업지역으로서 성수동 카페거리의 미감을 강화하고 동질화시키는 시도이다. 즉, 힙스터 미학에 의해 촉발된 경관의 환원 과정에서 장소기억에 기댄 경관의 미적 가치는 대체되고 소실되는 것이다.

2. 서울숲 카페골목: 연립주택의 재발견

성수역 인근과 달리 이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 상업화되는 과정에 있으며, 대표적인 힙스터 미적 취향에 부합하는 '낙후된 경관 요소'로는 적벽돌 표면의 연립주택을 들 수 있다. 적벽돌은 1970년대부터 연립주택에 활용된 마감재였으나, 1990년대

이후 연립주택 지역의 아파트 재개발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낙후지역의 시각적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적벽돌은 '오래됨' 또는 '낙후됨'과 연결되어 힙스터 미감의 재생 경관에서 종종 활용되어 왔다.

이에 더해 서울숲 카페골목의 재생 경관에서 적벽돌이 활용되고 있는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생 경관의 시각적 틀에 어울리도록 조성된 성수동의 새로운 경관에서 적벽돌은 넓은 유리창과 조합되어 대조를 이루는 데 활용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색상만으로 환원되어 전혀 다른 재료로 재현되기도 한다. 따라서 적벽돌 또는 적벽돌의 색은 성수동의 재생 경관에서 '낡음'을 상징하는 물질로 환원되며, 내재된 사회·문화적 의미를 상실한다. 즉, 서울숲 인근의 도시 경관은 도시재생 과정에서 재생(regeneration)이 아닌 재현(representation)을 반복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IV. 맺음말

이 연구는 국내외 도시재생 경관의 장소 마케팅에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 개념 중 하나인 '힙스터'의 의미와 경관에서의 미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이론적 차원에서 힙스터 문화가 적용된 재생 경관을 파악하고 실천적 차원에서 힙스터 미학이 경관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탐구함으로써 '힙' 개념이 내재된 상업적 도시재생 경관을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자 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수동과 같은 재생 경관에서 힙스터 미학은 장소기억의 형태만을 취하고, 내재된 의미를 누락시킴으로써 장소성을 소멸시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경의 가능성과 역할을 재검토하고, 일상 경관의 현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추후 재생 경관의 다원적 성질을 탐구하고 미적 함의를 파악함으로써 도시재생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층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Berleant, A.(2010) Sensibility and Sense. Exeter: Imprint Academic.
- Florida, R.(2002)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New York: Basic Books.
- Hall, P.(1998) Cities in Civilization. London: Phoenix Giant.
- Hernandez, M.(2014) On the Hipster Aesthetic in Four Acts.
- Hill, W.(2016) Hipster aesthetics: Creatives with no alternative. *Emaj* 9: 1-9.
- Hill, W.(2017) Art after the Hipster. Cham: Palgrave MacMillan.
- Michael, J.(2015) It's really not hip to be a hipster, Negotiating trends and authenticity in the cultural field. *Journal of Consumer Culture* 15(2): 163-182.
- n+1.(2010) What was the Hipster? A Sociological Investigation. 최재희 역(2011) 서울: 마티.
- Saito, Y.(2017) Aesthetics of the Famili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